

현대불교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손금리로 내릴 때는 약금리리
고액저금 우대금리로 근로소득,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응서비스 제공
문의: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발행인 김경삼/편집인 김경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구 경자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2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금주의 법구**
- 보리살을 씨앗으로 삼고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으며 방편을 실천하라. (대일경)
- 법회 안내**
- 거암정사 포교원 (02)379-6940
-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30분
지장재일 매일 18시(음) 오전11시
포교법회 매주 화 오전10시 30분
기초교과법회 화 오후8시 30분
건강법회 마지막 일 오전10시 30분
- 불교문학포교원 (02)308-9520
- 초하루법회 매일1일(음) 오전10시
문학법회 매일 넷째주 일 오후2시
주아문도법회 셋째주 금 오전11시
어린이창작교과회 매주 일 오전10시
- 흥은사 (02)822-1990
- 초하루법회 매일1일~3일(음)
지장재일 매일 18시(음)
관음재일 매일 21시(음)
일부신도법회 화 오전10시 30분
어린이·종교법회 일 오전10시
- 여의도 포교원 (02)784-9136
- 일부신도법회 일 오전10시 30분
관음재일 목·일 오전10시 30분
- 부신 관음사 (051)205-0069
- 초하루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주 목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주 목 오후3시
보문상년회 매일 1·3 일 오후2시
관음재일 매주 수 오전11시
한정초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 송광사 포교원(0804)857-2328
- 초하루법회 매일1일(음)
지장재일 매일 18시(음)
중·고등법회 토 오후3시 30분
청년법회 매일 첫째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1**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장의예식봉사단 발족

24시간 상담전화 개설... 불교예식 통일 추진
조직 전국확대... 남골·탑묘제 정착 이끌어

임종에서 장지까지의 모든 장례 절차를 자원봉사체제로 역할하게 치러나갈 조계종 불교 자원봉사센터 '장의예식봉사단' (단장 시현스님·조계종 분서부장)이 지난 18일 창단했다. 조계종 불교자원봉사센터가 현대장의연구소(소장 이재학)와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장의예식봉사단은 장의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 불교식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장의예식비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뒷받침해 준다. 장의예식봉사단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의정부, 진행요원, 교육이수 봉사자들로 구성된 20명의 봉사단으로 꾸러지고, 점차적으로 전국 14개 시도지역에 봉사센터를 조직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장의예식봉사단은 우선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장의예식 자원봉사의 내용 및 절차교육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의예식봉사단은 앞으로 현장활동을 통해 지역별로 상이한 불교장례 절차를 수정,

보완한 통일불교장의예식집도 발간하게 된다. 현재 장의예식봉사단은 24시간 장의상담전화 080-972-4444를 개설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02-872-1444) 운영에 착수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불교자원봉사센터 장의예식봉사단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장례예식장 사업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남골·탑묘제 등의 사회적 정착을 꾀할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위덕대 초대총장 손제석씨 선임



한마음으로 부르는 자비의 노래
삼소회는 지난 20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재난사고 희생영령 및 5·18 희생영령 합동천주제'를 봉행했다. 이날 천주제에서 출석자들은 모든 영령들이 생사의 고향을 넘어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를 한마음으로 노래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전통사찰 경내지 종토세 면제

내년부터 시행... 토지세 80%감면 효과 예상

전통사찰 소유 경내지에 대한 종토세가 전면 비과세된다. 내무부는 조계종과의 수차례 회담 끝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 8(종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에 제7호를 신설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조항을 삽입시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임대용 수익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시행령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계종 기획실장 한용스님은 "이 시행령이 실시되면 사찰토지 관련 세금중 80%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내다보고 "토지조과 이득세도 비과세되도록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어

해가 바깥에 마다 유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연말이면 유서를 다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대학교 순봉호교수(57·사회교육과)를 비롯 '유산남기지 않기운동'을 하는 분들은 해마다 '전 재산의 7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쓴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정기모임

도 갖지 않는 이운들은 1984년에 시작했다. 현재 회원은 2백80여명이라고 한다. "우리는, 재산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형식에 불과하다. 돈과 재물은 이웃을 위해

해마다 쓰는 유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져야 합니다." 손교수가 '유산남기지 않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취지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 공기 내 공기가 따로 없이 등식물까지 함께 공기를 공유하

고(苦)와 시작인 줄도 모르고, 때문에 전 재산의 7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아주 어려운 일이다.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해마다 유서를 다시 쓰는 이유 역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해 사일 것이다. 행여 '아깝다'는 욕심이 잠초처럼 불꽃 자랄까 염려해서 연말이면 물심양면으로 손익계산서를 뽑으면서 다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70%는 아니더라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기수익의 열마를 이웃과 나누었다 한번쯤 돌아보자. 그리고 '남의 불행은 먼저 생각하는 자비 가득한 세상을 가꾸자'는 조계종 종정스님의 방자년 신년법어를 가슴에 새롭게 담자.

부처님 땅에서 성도도절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4대명절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인 성도도절을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80생애를 고스란히 간직하신 인도성지는 부처님의 해후를 온몸으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이시대 우리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 무엇인지 알게끔 할 것입니다. 1996년 새해,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입태한 인도성지 참배로 큰 감동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발자취따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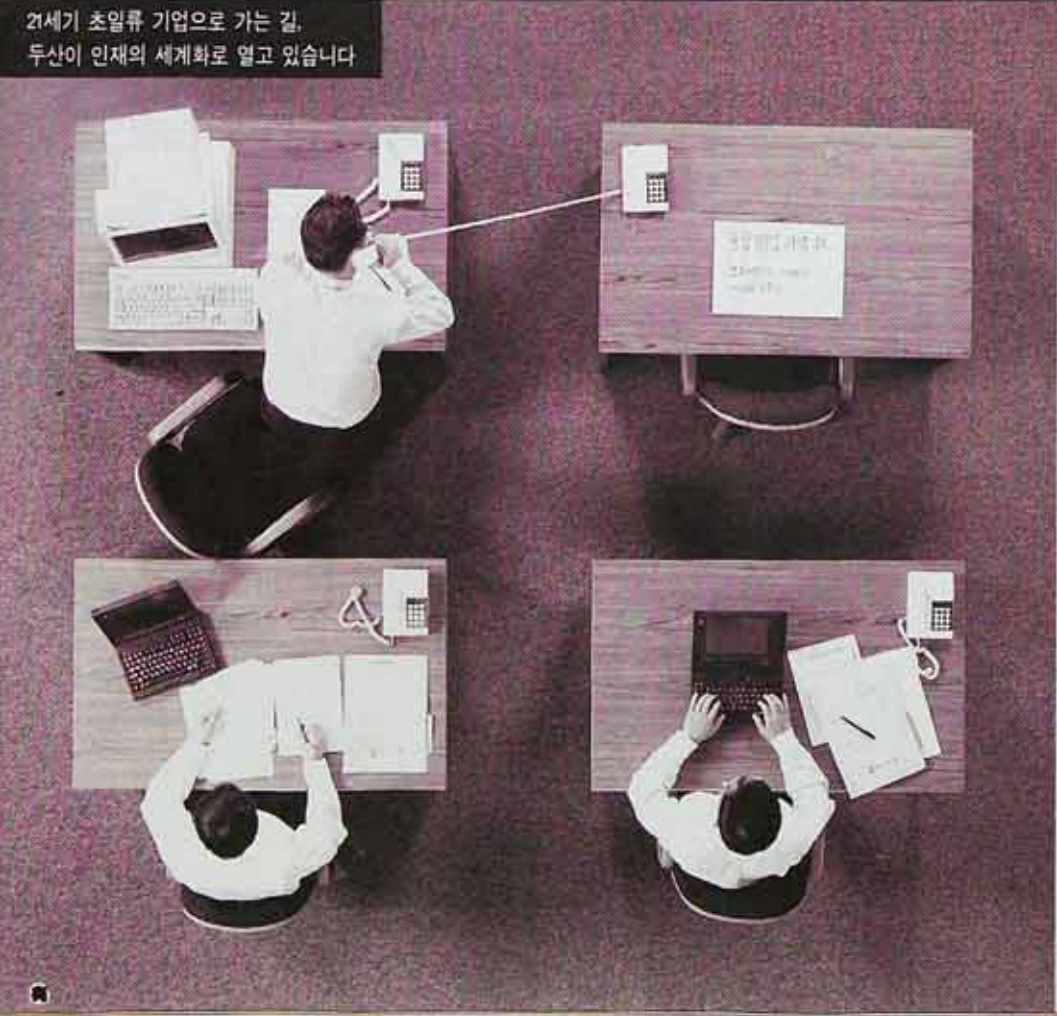
'현대불교 인도 성지순례단'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출발일정: 1차: 96. 1. 17, 2차: 96. 1. 24, 3차: 96. 1. 26, 4차: 96. 1. 31, 5차: 96. 2. 4

여행조건: 1. 금호택 기준 2인실 (성지지역은 현지 최고 수준)
2. 당일정 식사포함(기내식포함)
3. 성지 지역: 한식제공
4. 해외여행보험, 공항세, 인도·네팔 비자 수수료 포함
5. 인도성지 전문 안내인 동행

* 기타문의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세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737-8881

해 넘기는 교계현안 19면 '95 마감 기자방담 18면
법정스님 송년설법 10·11면 해맞이 법회로 새해맞자 13면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두산이 인재의 세계화로 열고 있습니다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 100년, 도전 100년
두산